

아나키스트도서관 (Korean)

# 통합에관하여

볼린

볼린  
통합에관하여  
1924

<https://theanarchistlibrary.org/library/voline-on-synthesis>

[kr.theanarchistlibrary.org](https://kr.theanarchistlibrary.org)

1924

# 차례

첫번째글	3
I.	3
II.	5
III.	7
IV.	10
두번째글	15

미래사회의세포가될것인데끝없이다투고대립하는것이무슨도움이되겠는가? 우리는이분쟁들이존재할어떤이유도없다고여긴다. 이전에있었던일들에비추어볼때, 이렇게하찮은것들을두고육신각신하는목적은전혀의미가없어보인다. 왜냐하면우리는신디케이트, 노동조합, 코뮌, 개인주의연합, 계급기반조직, 동조집단, 혁명적조직등은모두자신들의힘과영향력에비례하여새로운사회와새로운삶을건설하는데참여할것이라고확신하기때문이다.

이제우리의언론과조직들은, 우리의토론에귀를기울이는것은순전히철학적인차이보다는이공허한질문을위한것이며, 우리대오에서쓰라린투쟁이일어나고, 우리스스로를때려눕히고, 이런식으로우리세력을“아나키즘적조합주의자”, “아나키즘적코뮌주의자”, “개인주의적아나키스트”등더많은종류의꼬리표로나누어강조하기위함이라는것을, 그리고우리의운동은무의미하게짓눌리고부서졌다는것을조심스레깨닫기에충분하다.

우리는이런점에서서로다른성향의아나키스트들이이러한절단과분열에대한어떠한심각한기반도없다는것을인식할때가왔다고믿는다. 우리가이사실을인식했을때우리의화해를향한큰진전이이루어질것이다. 불화의빌미가하나줄어들것이다. 각각은특정요인에대해우위를점할수있지만, 동시에다른요인의존재와중요성을인정하고, 결과적으로다른아나키스트가다른요인에우위를점할수있다는동등한권리를인정해야한다. 이렇게하여동지들은서로를파문하는적대적진영에있지않고공통의동지애속에서신념을대조하며이념적으로고군분투함으로써, 각자가관심을가지는방향으로사상과활동을발전시킴으로써같은조직, 같은기관, 공통의운동에서어떻게손을마주잡고일할수있는지를알게되는쪽으로한걸음나아갈것이다. 그러한관계를확립하는것은통일된아나키즘운동의체계에견고한초석을제공할것이다.

불린

소화기관이나 호흡기관만이 생명체의 창조적이고 활동적인, “진정한” 세포나 기관이라고 단언하는 것은 사실관계와 맞지 않는 터무니 없는 소리일 것이다. 유기체가 다양한 종류와 목적을 지닌 세포와 유기체의 살아있는 통합이라고 한다면, 한 가지 방법과 양식만이 정확히 미래 사회 건설의 유일하고 “진정한” 방법이 양식이라고 믿는 것 역시 마찬가지이다.

진정한 사회 생활, 사회 창조 및 사회 혁명은 복합적인 통합적인 다양성의 현상이며, 그 통합, 그 다양성은 살아 있고, 활동적이고, 가변적인 요소로 이루어져 있다 (특히 현재 곰팡이 슬고, 정지되고, 무력에 의해 형성되는 사회 생활이 우리 중 많은 사람이 운에서 무분별하게, 혁명은 특정하고 유일하고 단호한 길로 나아가야만 한다는 그릇된 견해를 고무시키고 있다. 그것은 마치 우리가 이 빈혈적이고 비참하고 무색의 생활로부터 어떻게 해방되어야 하는지 모르는 듯하다. 그것은 무의식 중에 미래에 대한 우리의 생각, 우리의 사상을 틀어막고 있다. 하지만 일단 그 짜인 생활이 거부되고 거대한 창조적 운동의 근원이 밝혀지면 진정한 혁명은 위대하다. 다양성과 살아 있는 통합의 인상적인 보편적 운동의 방향으로 사회 생활을 정확히 변화시킬 것이다). 우리는 단호히 이 상황을 설명해야 한다. 즉 우리는 더 이상 한 가지 모델에 얽매이지 않고 그 다원성에 의지하여 가능한 한 많은 그 통합을 (요소들의 이동성을 잊지 않고) 시작해야 한다. 만일 우리의 열망과 사회 건설이 진정한 해방의 진실된 방법들에 부합하고 진정한 힘이 되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이러한 수단과 열망을 명확히 하고 실현하도록 돕기 위해 부름을 받는다.

따라서, 또한 순수하게 현실적인 관점에서 우리는 다원성과 살아 있는 통합이 사물의 진정한 본질이며 우리의 이론과 건설에 필요한 주춧돌이라는 점을 깨닫게 된다.

처음 제기된 문제에 대한 답변은 다음과 같다.

사회 혁명은 다양한 상황과 필요에서 태어난 다양한 세력, 지렛대, 방법, 수단, 조직의 형태와 연결과 결합된 행동의 도움을 빌려 아주 많은 대중들에 의해 이루어질 것이다. 본질적으로, 그 성격과 형태에 있어서, 이 모든 장엄한 과정은 결과적으로 “다원적 통합 plural-synthetic”이 될 것이다.

만약 그것이 사회 혁명을 불러올 노동자의 신디케이트, 코민 혹은 개인 주의 연합이라면, 그것이 “계급 기반 조직”이나 “동조 집단”이나 “혁명적 조직”이라면 그것은 혁명적 행동과 창조의 “진정한” 형태와 도구가 될 것이고

## 첫 번째 글

### I.

전설에 따르면 예수 그리스도는 “진리가 무엇인가?”라는 본티오 빌라도의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고 한다. 이 비극적인 순간에 그는 철학적인 쟁에 관심을 가질 마음이 거의 없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러나 그가 진리의 본질에 관한 논쟁에 참여할 시간과 욕구가 있었다고 해도, 결정적인 방식으로 응답하는 것은 쉽지 않았을 것이다.

그 뒤로 수 세기가 지났다. 인류는 세상에 대한 지식을 향해 한 걸음 이상을 내딛었다. 본티오 빌라도의 물음은 인류를 고민하게 하였으며, 사람들에게 모든 방향으로 생각하고, 일하고, 모색하게 만들었으며 많은 이들의 마음에 에고를 초래했다. 진리를 탐구하는 방법들은 오랫동안 다양했다. 그럼에도 그 질문은 늘 답이 없는 채 남아 있다.

객관적인 진리를 추구하고 확립하기 위해 우리가 따르는 어떤 방향이나 영역에서든 세 가지 주요 장애물이 발생한다.

이 장애물들 중 첫 번째 장애물은 순수하게 이론적이고 철학적인 성격에 인상을 받았다. 사실 진리는 존재하는 모든 것, 즉 현존하는 모든 것이다. 진리를 안다는 것은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다. 하지만 무엇인지를 아는 것, 참된 진리인 사물의 본질 (“그 자체”) 을 아는 것은 몇 가지 이유로 현실 시점에서는 불가능한 것처럼 보이며, 아마도 항상 그럴 것이다. 그 불가능성의 본질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세상은 우리에게 있어 우리가 그것을 만들어 낸다는 생각이 외의 것이 결코 아닐 것이다. 그것은 실제와는 달리 우리의 (또는 그 이상의) 빈약하고 그릇된 감각에 의해, 그리고 모든 것을 알기 위한 불완전하고 조잡한 방법의 해 우리에게 묘사되는 것처럼 우리에게 나타나다. 두 가지 모두 매우 제한적이며, 주관적이고 변덕스럽다. 이것은 감각의 영역에서 이끌어 내진 예시이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자연계에는 빛도 색도 소리도 존재하지 않는다 (우리가 움직임이나 진동이라고 믿는 것만이 존재한다). 하지만 우리는 무엇보다도 빛과 색 (시각 기관의 도움을 빌려 수집되고 교환된 진동) 과 소리 (청각 장치에 의해 수집되고 교환된 움직임) 로 구성된 세상에 대한 인상을 가지고 있다. 또한 자연계에서의 심의 여지 없이 일어나고 있는 일련의 현상 전체가 우리의 감각 기관을 피하고 있는 것을 잊

지말아주기바란다. 지식의영역에서이로써본보기가되기위해서는항상특성이론이다른이론으로대체되는것을거부한다는사실을드러내는것으로충분하다(아주최근의에는아인슈타인의상대성이론으로, 우리의모든지식체계를“파괴”하는경향이있는아주유명한이론이다). 내가지금알고있는유일한것은내가존재한다는것(cogito, ergo sum, 나는생각한다, 고로존재한다), 그리고나이의외에무언가현실이존재한다는것이다. 그것을정확히알지못하더라도, 그것이존재한다는것을나는안다. 첫째, 내가존재하기때문에나를창조한어떠한실재實在가존재해야만한다. 둘째, 내바깥에있는실체가나에게특정한인상을전달하기때문이다. 내가모르는실재, 내가모르는본질, 내가세상과삶이라고부르는것이바로그실재다. 그리고그것이아는것에도움이되는한, 내가알고싶다고생각하는것은그실재다.

분명히우리가늘그장애물을고려하기를원했다면우리에게남는것은딱한마디뿐이다. 우리가알고있다고생각하는모든것은거짓말, 사기, 환상일뿐이다. 우리가알기위한수단은너무나불완전하기때문에우리는사물의본질을알수없다... 그리고그것에기초해서우리는모든종류의과학적노동, 세상의진리와지식을추구하는모든작업을포기해야만할것이다. 그런종류의모든시도가완전히쓸모없고결코성공하지못할운명임을고려하면말이다.

그러나과학적행위의압도적다수에있어 — 순수하게철학적인추측의영역을제쳐둘경우 — 우리는실천뿐만아니라사고思考의행위에서그장애물을거의고려하지않는다. 첫째, 만약우리가그렇게한다면우리는정말로진실에대한모든과학적활동, 모든탐구를포기해야할것이기때문에, 여러이유로우리에게완전히받아들여질수없는것이다. 그리고우리의인상은어느시점까지그것이그렇게되어있는실재를모두똑같이반영하고, 우리의이해는그실재의지식, 진리에의지식에점점가까워진다고믿을특정함이유가있다. 특히이마지막주장은다른추진력과함께우리의연구활동을멈추지않고, 넓히고깊게하도록이끄는것이다.

데이터로서 — 즉우리모두에게공통적인실제적이고구체적인의미를가지고있다는것은 — 우리의인상, 특히세상과삶에대한지식이다. 우리가살고, 일하고, 행동하는환경, 구체적인상황을감안할때 — 우리는그현실의한계안에서그리고그것이제시하는것안에서주관적이고관습적인실재를추구한다.

진리의문제는그실재의범위내에서동일하게제기된다. 그리고무엇보다도우리의이해와인상에접근할수있는실재를해독하고, 그지식의한

든다른잠재적조직, 노동자단체들과연합한시골의농민조합, 방어를위해무장한세력, 진정한자유지지주의코뮌들, 개인주의적세력과그들의사상적조합 — 이러한모든양식과방법들이작동할것이다. 혁명은이모든지렛대들을통해작동할것이다. 이모든흐름과급류는자연스러운양식으로분출되고흘러위대한창조적과정의광대한일반적인움직임을형성할것이다. 진정한혁명과정에서종사하는광대한노동대중이행동하는것은그들의모든힘과수단을통해서이다. 우리는심지어현재의개량주의및보수주의노동자조직들조차이과정에서필연적이고빠르게“혁명화”될것이며, 그들의완강한지도자들이나막후에서활동하는포기한뒤그들의자리를대신하게되고, 충동적이고창조적이며혁명적인다른흐름의급류와재회할것이다.

이운동은당연하지만단순히사회의분쇄가아닐것이다. 그것은패배의모습과일반적인질서의파괴의모습을지니지않을것이다. 그것은오히려자연스럽고필연적으로조화, 당사자간의상호적인연결, 그리고그자신의양식적창조뿐만아니라필수적이고즉각적인과제와필요에의해조속히추진될조직의특정한단결을열망할것이다. 이단결은다양한양식의창조와행동의살아있고활동적인결합이될것이다. 이양식들중일부는거부되고, 일부는다시태어나겠지만, 모두가자신의위치, 역할, 필요성, 목적지를찾고점차자연스럽게조화된전체로융합될것이다. 모든창조물을파괴하는“양식”, 즉권력이복원되지않고대중이그들의행동에자유로워진다. 수많은지역적조건및다른조건에의해상황은변화할것이고, 앞으로등장할창조적양식은거부되기도하고발판을마련하기도할것이다. 어떤경우든, 단일한양식, 불변의경직된양식혹은단일한과정을위한자리는없을것이다. 다양한지역으로부터다양한양식과방법이생겨나면서다양한조건과다양한필요성이발생할것이다. 그리고삶의일반적인창조적급류, 건설, 그리고사회의새로운단결은이러한양식과방법의살아있는통합이될것이다(이런식으로우리는특히형식적이지않고살아있는, 진정한연합을이해한다. 우리는연방주의적환경에서, 특히“아나키즘적조합주의자”들이종종만들어내는회일적인수단, 방법, 또는경제적, 사회적양식의상相들이자유조합으로서의연방의진정한개념과절대적으로모순된다고, 그리고결과적으로자연적으로다양하고활동적인사회세포의창조적이고진보적이며자연스럽고활동적인모든삶의충만함과다양성을배제한다고믿는다).

이러한통합의경제적본질은분명코뮌주의원칙의계속적인실현, 진화및강화가될것이다. 그러나그구성요소, 그구축수단및그중요한기능은다른살아있는통합과마찬가지로, 신체의세포, 기관, 그리고기능과마찬가지로많은부분으로이루어진것이될것이다. 신경세포나근육세포,

동의유일한길과유일한양식이코뮌건설이며그러한코뮌만이새로운건설의기반과도구, 새로운사회의창조적세포가될것이라고가정하는것은터무니없는일일것이다.

그들의혁명에서, 대중은정확히그리고구별되게“조합주의자”의길을따를것인가? 물론아닐것이다. 신디케이트 syndicate 그리고일반적인노동자조직이위대한사회재건을이루기위해단독으로호출될것이며, 명확하고구별되게미래사회의지렛대와세포가될것이라고생각하는것도이에못지않게터무니없을것이다.

사회혁명의과제가고립되고의식적인일부인물들의몇몇개별적인노력과사상의단체에의해서만해결될것이며, 이념공동체에의한그러한연합, 협회또는집단화만이다가오는세계의기반이되고그들에의해서만해결될것이라고믿는것은터무니없는일일것이다.

사회혁명의이거대하고가공할만한작업 — 창조적이고살아있는행위 — 가하나의확실적인길로전환될수있다고상상하는것은일반적으로터무니없는일이며, 투쟁, 조직, 운동또는활동의일부특정한측면이사회혁명의과정에서유일하고“진정한”양식, 유일한방법, 유일한면이되리라고상상하는것도터무니없는일일것이다.

확고하고진정의기양양한발걸음으로전진하는이비옥한사회혁명은만물의힘에의해그필요성에부추겨진너른바다와같은대중들에의해실행될것이며, 이강력한운동에서시작해완전하고독립적으로고안하고창조해내는새로운양식의사회생활을폭넓고자유롭게추구할것이다. 이것이발생하지않으면혁명의창조적인과제는해결되지않은채남게될것이고, 이전의모든혁명과마찬가지로쓸모없게될것이다. 그리고만약이것이사실이라고할때, 우리가이거대한과정, 가장광대한대중의이창조적인움직임과그무수한응용지점들을잠시상상해본다면, 그들이창조하고행동하는여러방법 — 다양하고분주하며중중우리가예상치도 못한방법들로넓은전선을따라움직일것은절대적으로분명하다. 인구의구성, 다양한지역 (그리고아마도국가) 의경제적, 산업적, 문화적생활의성격과목적의임박한요건의경제적, 사회적, 문화적등모든사회적관계의대중에의한재건 — 그러한과제는분명가장다양한형식과방법의창조, 적용 및창조적인조정을필요로할것이다.

대혁명은천갈래길로나아갈것이다. 그건설적인과제는수천가지의양식, 방법, 수단, 조합을통해성취될것이다. 도시및공업지역에지부와연합을둔신디케이트, 노동조합, 공장위원회, 생산노동자조직, 협동조합과모든종류의연결협회, 또한아마도살아있고활동적인소비에트와모

계의계속적인확대를추구하는것 — 이것은이미우리에게있어가장중요한문제처럼보인다.

그러나이경우도우리앞에닥쳐오는것이있으며, 연구의경로와진리의확립, 다른두가지장애물, 구체적인성격도보게된다.

두번째장애물 — 삶과마찬가지로진리는분열되어있지않다. 진리(삶과마찬가지로) 는모든것이다. 진리의이부분이나저부분을아는것은우리가진리를알고있다는것을의미할수없다 (다만부분적인지식에서전체적인지식으로이행할필요가있는경우도있다). 진리를안다는것 — 이것은정확히말하자면모든우주를알고있다는것을의미한다. 모든존재, 모든생명, 모든삶의길, 그리고모든힘, 모든법칙과경향, 모든시간과모든조건, 모든다른비밀, 모든현상과별개의세부사항, 뿐만아니라그전체에대해서. 비록그것이우리의인상과이해능력이이해할수있는세계의범위안에있다고하더라도우주를포용하고, 삶을알고, 그내적의미를관통하는것은지금우리에게불가능해보이고, 아마도불가능할것이다.

세번째장애물 — 삶의가장특징적인특징은그영원하고끊임없는움직임, 변화, 지속적인변화다. 따라서확고하고, 변함없고, 단호한진리는존재하지않는다. 오히려일반적이고완전한진리가존재한다면, 그것의정의적定義的인특성은그것을구성하는모든요소의지속적인변위, 끊임없이변화하는움직임일것이다. 결과적으로, 그진리에대한지식은이모든변화와순열의법칙, 모든형태, 모든조합, 가능성과결과에대한완전한지식, 명확한정의, 정확한감소를전제로한다. 이제그러한지식, 즉무한한움직임과진동, 끊임없이변화하는힘에대한정확한설명 — 이진동과변화에일정한규칙성과반복법칙이존재한다하더라도 — 거의불가능한것이될것이다.

## II.

진리를안다는것 — 그것은삶을있는그대로안다는것, 사물의진정한본질을안다는것을의미한다.

우리는진정한삶을알지못하기때문에진리를알지못한다.

하지만우리는그에대하여느 정도의지식을가지고있다.

우리가 삶의 인상을 받고 우리 감각의 증언을 통해 그것을 알게 되고, 우리가 지시하는 장애물에 부딪히는 바로 그 순간에 우리가 마음대로 찾을 수 있다는 것을 아는 수단을 통해 그것을 알게 되면서 — 먼저 우리는 삶이란 실재일 뿐만 아니라 개인적인 감각으로서 어떠한 위대한 통합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 즉 다양한 힘과 에너지, 모든 종류의 요인의 결과물임을 배우게 되는 것이다.

우리는 또한 이 통합은 끊임 없는 변화에 대한 지속적인 움직임에 종속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 우리는 그 결과가 결코 정지된 것을 발견하지 못한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반대로 그것은 쉬지 않고 진동하고 변화한다는 것을 안다.

진리를 안다는 것 — 그것은 이 세계적 통합의 모든 세부 사항, 그 전체, 그리고 그 모든 영원한 움직임, 모든 조합과 그 중단 없는 변화속에서, 이 세계적 통합의 전체를 포용하고, 알고, 이해하는 것을 의미할 것이다.

우리가 그 세부 사항, 전체, 그리고 그 움직임 가운데서 삶을 안다면, 우리는 진리를 알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 진리는 끊임 없이 움직이는 힘의 결과물이다. 그때문에 우리는 모든 움직임을 알 필요가 있다.

---

우리는 진정한 삶도, 그 통합도 알지 못한다. 우리는 그 실재도, 의미도, 움직임도 알지 못한다. 우리에게 있어 삶 전체는 거대한 수수께끼, 거대한 신비다. 우리는 때때로 공기 중에서 통합의 편린을 뽑아 낼 수 있을 뿐이다...

우리는 사물의 진정한 진리, 객관적인 진리를 알지 못한다. 우리는 여전히 진리를 발견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것을 발견할 수 있을지 여부조차 모른다. 우리는 때때로 진리의 고립된 입자를 찾는 데 성공할 뿐이다 — 분산되어 빛나는 금빛 반짝임, 이로부터 우리가 전체를 형성하는 것은 여전히 불가능하다...

하지만 — 우리는 진리를 추구한다 (보다 잘 이야기 하자면, 우리가운데는 그렇게 하고 있는 사람도 있다). 우리는 몇 세기나, 몇 천년이나 그것을 추구해 왔다. 우리는 사방을, 사방을 훑어 본다 — 강박적으로, 고통스럽고 슬프게 모든 힘을 수색에 투입한다.

그리고 인생이 위대한 통합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면, 그 결과 진리의 탐구는 통합의 탐구이고, 진리의 경로는 통합의 경로이며, 진리를 찾는 데 있

## 두 번째 글

이전 글에서 우리는 진리에 대한 탐색 방법, 즉 문제를 이론적으로 고려하는 일반적인 방식에 대한 질문에서 멈추어 섰다.

우리는 이러한 방식이 통합적이어야 하며, 완전한 진리의 한 부분을 고집해 진리를 훼손하고, 우리를 진리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대신, 우리는 가능한 한 많은 부분을 알고 수용하려고 노력하여 결과적으로 우리 스스로를 참된 진리에 가까이 하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반대의 경우, 우리는 협력적이고 형제적인 노동, 확장되고 생산적인 노동 대신에 우리는 분명 끝이 없고, 절대적으로 무의미한 논쟁이나 의견 불일치에 빠지게 될 것이다. 우리는 늘 배타주의, 편협함, 불관용, 그리고 메마르고 교조적인 독단주의를 수반하는 가장 변변찮은 오류에 빠질 것이다.

이제 또 하나의 중요한 질문에 대해서도 폭넓게 다루어 보자. 누가, 어떤 세력이 특히 이토록 거대한 창조적 과제인 사회혁명을 불러올 것인가? 어떻게? 이 모든 웅장한 과정의 본질, 성격, 양식은 무엇인가?

우선 사회혁명이 최종적으로는 매우 광대하고 복잡한 창조적 현상이 될 것이며, 자유롭고 독립적으로 일하며, 이런 저런 방식으로 조직된 수많은 대중만이 사회 재건이라는 거대한 문제를 즐겁고 유익하게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것은 이론의 여지가 없다.

사회혁명의 과정이 무엇을 의미하든 우리는 위대한 미래 사회 변혁의 내용, 양식, 즉각적인 결과를 상상한다 — 우리의 모든 경향은 특정 본질적인 점에 대해 합의에 도달해야 한다. 아나키즘적 조합주의자, 아나키즘적 코뮌주의자, 개인주의자, 그리고 다른 자유의지주의 흐름의 대표자들은 필연적으로 사회혁명의 과정이 무한히 광범위하고 다면적이며 복잡한 현상이며, 그것이 가장 근본적으로 창조적인 사회적 행위이며, 그것은 광대하고 자유롭고 독립되고 조직화된 대중으로부터의 격렬한 행동 없이는 실현될 수 없다는 데 동의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 위대한 대중들은 사회혁명에서 무엇을 할 것인가? 그들은 어떻게 창조할 것인가? 그들은 어떻게 그토록 광범위하고 복잡한 새 건설의 과제를 해결할 것인가?

그들은 아나키즘적 코뮌을 구축하는데 직접, 명확하게, 그리고 독자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있을 것인가? 분명 아닐 것이다. 사회적 및 혁명적 행

makhnovstchina”, 인간의인격을높이고육성하는것을알려주는, 우리에게빛나는지평을드러내는개인주의사상의광범위한유통. 그리고폭력에대한혐오의선전은혁명중일어날수있는과잉과일탈에대해경계해야만한다...

나는이각각의사상들, 이각각의현상들은결점, 오류, 도착倒錯뿐만 아니라어느밝은날명확히나타날진리의알갱이들을포함하고있는것같다고생각한다. 그리고그들이과장했던것들은거부될것이다.

나는이모든알갱이들 — 이모든현상들과사상들 — 은서로치열한전쟁을벌일필요없이나키즘의넓은날개아래에서충분한장소를찾을수있으리라고생각한다. 그것들을단결시키고통합하기위해서는그것들을원하고아는것으로충분하다.

이러한목표를달성하기위해서는, 아나키스트들은외부에서그들의환경에유입된편견에서벗어나고, 세상과삶에대한아나키즘개념의본질에완전히이질적인것들, 즉인간의편협함, 사소한배타성, 그리고혐오스러운자기중심성으로부터벗어나자신을향상시키는것부터시작해야한다. 모든사람이일하고 — 어떤영역의사상과현상에서든각각그들의상황, 기질, 선호, 신념, 그리고능력에따라 — 밀접하게연결되어있고, 단결하고, 다른사람들의자유와개성을존중하는것은필수적이다. 서로협력해원조와지원을구하고, 우호적인관용을보여주며, 각동지들의동등한권리를존중하고, 그들의취향과관점에따라그들이선택한방향으로일할자유를인정하는것 — 즉모든신념을완전히발전시킬수있는자유가필요하다. 이것은우리에게통합의협업이채택해야할양식을결정하는과제를제기했다.

아나키스트운동의통합에있어아나키즘노동자간진정한결합을시도할수있는것은그러한근거에바탕을두고있을때뿐이다. 왜냐하면나는오직그근거에의해서만우리의자기모순, 과장이극단으로밀려나고, 우리의날카로움과신랄함이부드러워지고, 우리의오류와일탈이수정될수있다고생각하기때문이다. 그리고진리는점점더우리의광대한계급을긴장시키고, 살아있는형태로결정화하고, 이제껏이상의강렬한불꽃으로타오르고, 항상보다선명하고웅장하게나타나고있다.

볼린

어항상통합을기억하고, 항상그것을열망하는것이중요하다는것을알게된다.

그리고우리는삶이지속적인움직임이라는것을알고있기에, 진리를추구하는데있어끊임없이그사실을고려해야한다.

### III.

우리가특히관심을가지고있는분야는순수한철학이나추측의분야가아니다. 우리의관심과열망, 그리고우리의시도가주요움직이는영역은생물학의문제중훨씬구체적이고접근하기쉬운문제이며, 무엇보다도사회학적문제다.

사회적개념을확립하고, 사회생활에적극적으로개입하고, 특정한방향으로영향을미치기위해, 우리는그구체적인영역에서인도하는진리를발견하고자한다.

그것을발견하기위해우리는무엇을해야하는가?

일반적으로우리는주어진삶의영역에서특정한현상을받아들이고분석하며, 그것들을알고그의미를깨닫고자한다. 우리는종종어떤현상으로부터정확한평가를이끌어내는데성공하고, 결과적으로어느일정부분, 진리의파편에손끝이닿기도한다.

이경우, 네가지근본적인오류가매우빈번하게 — 그리고매우특징적으로 — 발생한다.

1. 인간의분석은절대적인무오류가아니다. 그것은정확하고의심의여지가없는절대적인진리로직접이지지않는다. 모든분석에있어, 모든인간연구에있어, 우리는필연적으로그자리에서파악된진리의단편과함께다소큰오류, 실수, 때로는서투르고잘못된판단들과마주하게된다 — 때문에우리는진리와부합하지않는주장을제기한다. 우리는일반적으로이런오류가발생한다는사실을잊고있으며, 이러한오류를확인하고제거하기위해필요한수정사항을찾아적용하는대신오류를무시하거나더나쁜작업을수행한다 — 따라서우리는오류를진리의표현으로간주하여그것을변형시키고그가치를왜곡한다.

2. 아주드문예외를제외하고, 우리는일반적으로우리가발견한진리의 일부, 때로는매우미미한부분의중요성을과장하고, 그것을일반화하고, 그것을완전한진리라고전체는아닐지라도적어도훨씬더크고복잡한현상에이르기까지확장시키고, 그리고동시에우리가추구하는진리의다른요소들을거부하는경향이있다.

3. 우리는분석과일반화에도취되어그즉각적인결과에서잘못된, 진리를탐구하는데필요한두번째순간 — 그리고가장중요한순간 — 을고려하는것을늘었고있다. 진실하고정확한일반화방법, 그필요성 — 한번이루어진분석과현상, 즉진리의파편하나가파악되고이해되는것 — 그일부를올켜주고전체적인진리로만들어근본원리의반열에오르게하는것이아니라, 반대로동일한질서의사상과관련된다른현상을기억하고, 그것들의의미를이해하려하고, 발견된진리의일부와비교하고, 올바른통합을확립하기위해모든것을행한다. 이두번째문제는일반적으로우리를비껴간다. 우리는삶이수많은요소의통합이라는사실을잊고있다.

4. 우리는각단계에서움직임과변동이결코중단되지않는다는것을잊고있다. 우리는무감각한진리가존재하지않는다는것, 삶에서“모든것이 흘러간다는것”, 삶과진리는뛰어난역동성이라는것을잊고있다. 습관적으로, 우리는이때매우중요하고가치있는요소, 즉삶과진리의끊임없는역동성을고려하지않고있다. 그러나아메바가특정한모습으로움직이는것을아메바의고정된모습이라고하는것이잘못된것처럼, 진리의본질에대해비슷한경직성을가정하는것은잘못되었다. 조금전까지진리였던(혹은그렇가능성이있던) 것은그다음순간더이상진리가아니다. 통합자체는불변의것이아니다. 그것은끊임없이움직이는결과에지나지 않으며, 어떠한요소가가워질때도있는반면다른요소가가워질때도있고, 어느한쪽에오랫동안가워지는일은없다. 우리는이때매우중요한사실을충분히고려하고있지않다.<sup>1</sup>

드러난오류는인간과학의영역, 우리의사회생활에대한이해와연구에있어특히해로운중요성을지니고있는데, 이는특히수많은요소의예외적으로복잡한통합을나타내며, 그대다수는가장다양한요소들의특별한순서, 움직임, 그리고일련의조합 — 모두특히복잡한 — 을나타낸다(계다가그것은단순히기계적인것만은아니다).

가장심각한오류가가장빈번하게발생하는것은바로이영역이다. 특히진리를추구하는수많은추종자들이이에대해죄를범하고있다. 그들의

<sup>1</sup> 이와같은“결과의부단한변동성”현상과더불어인류사적사실에그것을적용하는것의중요성은다른연구에서상세히검토될것이다.

있는것이바로아나키즘이기때문이다. 사회학자들은항상사회의과학적통합을이루기위해항상노력한다. 이는아직까지이루어진바가없는데, 이통합의부재는두가지문제를불러일으켰다. 한편으로는극한으로몰린“마르크스주의”와“개인주의”, 그리고계속해서더제한적이고복잡하고현실로부터동떨어진다양한“주의들 isms”같은유사과학적인개념들을만들었으며, 다른한편으로는여러쓸모없고황당한개념과실용적시도를위한조리법을날았다. 이사회적과학적통합을이루고위문제를해결하기위해서사용되는것이야말로바로아나키즘이다.

아나키즘개념은반드시통합적인것이어야만한다. 아나키즘은과학적인분석에의해확립되고, 우리의사상, 우리의열망, 그리고우리가발견하는데성공한진리의단편들의통합에의해결실을맺게된삶의다른요소들의위대하고살아있는통합이되기를추구해야한다. 만일아나키즘이수십가지의불만가득하고, 편협하고, 화석화된“주의들”이분명될수없고, 인간의해방과진보의봉괴가아닌, 진리의선구자, 진실하고왜곡없는요인이되고자한다면통합적인것이어야만한다.

나는조합주의의적이아니다. 나는그저그것이지닌과대망상에반대할뿐이다. 나는(그들의비非노동자적성격이) 유일하고, 틀림이없으며, 경직된도그마 — 마르크스주의나정당같은것들을만들어내는경향에대해항의하는것이다.

나는코뮌주의(당연하지만아나키즘적코뮌주의) 의적이아니다. 나는모든종파간의편협한견해와불관용에반대할뿐이다. 나는그것의독단적인도착증과괴사에항의한다.

나는개인주의의적이아니다. 나는단지그것의자기중심적맹목에반대할뿐이다.

나는도덕적완전성을추구하는자아의적이아니다. 하지만나는그것이“유일한수단”으로인식되는것을용납하지않는다.

나는조직의적이아니다. 하지만나는아무도우리에간히게하고싶지않다.

나는인류해방의작업이동등한칭호에의해요구된다는것을발견한다. 공통의건강한삶의물질적기반으로서의자유코뮌주의. 조직화된대중의행동에필수불가결한지렛대중하나로서의조합주의운동. 반란과약동처럼대중의혁명적봉기의표현으로서의“마흐노우슈치나

기준에적합하지않은모든것에분개하고거절한다고말할때, 나는그들이, 지니고있는진리의일부의중요성을과장하고, 그일부에내재된결합이나그것과함께올바른진리를형성하는다른요소들에대해서도, 통합의필요성에대해서도, 그리고중요하고창조적인운동의요소에대해서도설명하고싶어하지않는다고생각한다. 때문에나는그들이진리로부터거리를두고있다고생각한다. 그리고나는그들이필요로할경우, 실제의삶이그들에게있어중요한진리와반대되기어거부하는그들의학술적인견을타인에게강요하고주입시키고자하는유혹을저버릴의지를갖추지못하고있는것을보게될까매우두렵다.

“아나키즘적코뮌주의자”가같은과정을거쳐질문에답하며자신의진리만을인정하고이내조합주의(혹은아나키즘적조합주의)를거부한다면같은비난을받아마땅하다.

“개인주의적아나키스트 individualist anarchist”가조합주의와코뮌주의를무시하고“자아 self”만을실재와진리로인정하고위대하고중요한통합전체를이작은“자아”로환원시키고자한다면그들도여전히같은오류를범하는것이다.

<유일한수단 The Unique Means>(1923년 7월, 「아나르히체스키베스트니크 Анархический вестник/Anarkhicheski Vestnik」 제 1 호참조) 이라는기사에농업공동체에서의인성의내적완벽성과의식적인인격의합리성만이유일한진리이자유일한구원의길을이룬다고적힌것을보고나는아나키즘적조합주의자들과그들의“유일한수단”역시떠올렸다. 그리고나는이모든이들이통합안에진리를찾는대신질리지도않고그들의작은수수알갱이를쫓아먹고있다는것을깨달았다.

그리고운동의유일하고진정한양식이그들자신이라고믿고, 그외의모든것을거부하는이들을“마흐노주의자 makhnovist”라고한다면, 그들도다른이들과마찬가지로진리로부터멀리떨어져있다.

그리고누군가아나키스트는비판과파괴의작업만을해야하며유익한문제에대한연구는아나키즘의영역에속하지않는다고할때, 나는그주장이우리의연구와사상에필수적인통합적성격 synthéticité 에관한중대한오류라고생각한다.

그러나그누구보다끊임없이삶의통합과역동성을상기해야하는것은바로아나키스트들이다. 왜냐하면세상과삶에대한개념이자, 그본질에의해깊이통합되는, 삶의살아있는창조적이고동기적인원칙이깊이이며

“진리”를재검토하고, 그들의오류를바로잡고, 필요한수정을행하는임무는후에다른이들에게맡겨진다.

여기예시로사용될수있는몇가지실례가있다. 마르크스 (Karl Heinrich Marx) 와엥겔스 (Friedrich Engels), 특히그신봉자들에게의해이루어진역사에있어서의경제적요인의역할(이른바“유물론적역사관 historical materialism”) 의정의定義 — 그흐름하지만일방적인(따라서결과적으로정확하게올바르지않은) 분석, 그리고 — 거기서도출된과장되고“확고한”(결과적으로상당히부정확한) 추론. 카를마르크스와그의추종자들의계급이론 — 그분석역시훌륭하지만, 편협하고불충분하고(따라서많은점에서잘못되었고), 그로부터이루어진비틀린추론. 생존경쟁의“법칙”[찰스다윈 (Charles Robert Darwin), 그리고특히과학의여러분야에있어그의지지자] 과그모든오류와과장. 막스슈티르너 (Max Stirner)(그리고특히그의신봉자들) 의일방적인개인주의이론과다른많은것들.

마르크스의경제교리와계급이론, 슈티르너의개인주의적개념, 다윈의생존경쟁법칙등등은 — 곧잘몇몇중요한결과로유도되고호출되었으며 — 복잡하고필수적인통합의요소중한가지에대한감탄할만한분석이지만, 통합의진리에다가가기위해서는이모든이론들은한가지본질적인것이부족한데, 다른요소및요인의분석과병치할필요성에대하여해맞이러한다른분석의결과로도출할수있는추론이다. 그들은다른질서의현상을설명하고자하는열망, 통합을추구하는열망이결여되어있다. 우리는실생활이일련의서로다른현상의통합이라는것을잇고있다. 그통합은더욱이끊임없이움직이는일련의변화적이고가변적인결과라는것을잇고있다. 우리는삶의실제적이고변화적인통합적성질과, 과학적지식에상응하는통합적특징의필요성을놓치고있다. 이것이일반화와추론, 그오류의근원이다. 진리에다가가는대신, 우리는진리와거리를둔다.

조사된현상에관한이러한잘못된태도는발견된진리의일부에대한우리의모든사회적구축시도에상당한피해를입힌다. 왜냐하면그것들은우리가우리앞에닥쳐오는문제들에대한정확한해결책으로이어지는경로에서매우멀리돌아가게하기때문이다.

사실우리가발견한각각의진리로부터우리는비진리의합금을발견할수밖에없다. 우리가확립한모든부분적인진리가결코전체로서의진리가될수없다. 진리가삶그자체처럼항상통합적이고변화적인것이라면 — 우리는우리의구축으로부터진리에다가갈수있다. 우리는훨씬더울

바르고 정확하게 중요한 현상과 과정을 계산하고 이해할 수 있다. 우리가 찾은 약간의 진리조차도 세밀하게 검사할 정도로, 같은 영역에서 찾아낸 진리의 일부와 다른 현상을 비교할 정도로, 통합에 이르러 만물의 방해받지 않는 움직임에 대한 핵심적인 사실을 지속적으로 환기시킬 정도로 말이다. 그리고 우리는 진리와, 삶에 대한 적절한 이해와, 올바른 개념으로부터 멀어진 다 — 우리가 검증, 비교, 대조에 관심을 적게 가지면서, 결국 통합과 운동의 사상으로 부터 거리를 두게 된다는 것이다.

우리는 올바르게 완전한 통합에 대한 지식을 결코 얻지 못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러나 우리를 인도해야 할 원칙은 가능한 한 그에 다가서기 위한 끊임 없는 노력이다.

우리가 발견한 진리의 결여나 결함으로부터 눈을 돌릴 때마다, 우리는 우리가 추구한 결과로부터 멀어진다. 이와는 반대로 이러한 오류를 주의 깊게 설명하고 자하고 수정 사항을 찾는 것이 적절한 방법이다.

우리가 발견한 진리의 단편을 전체이자 유일한 진리로 취하고, 때로는 그것들을 면밀하게 검토하는 수도도 없다. 다른 파편들을 거부할 때 마다 우리는 올바른 해결책으로부터 멀어진다. 올바른 방법은 발견된 각각의 조각들을 다른 조각들과 병치하고, 늘 새로운 진리의 일부를 발견하고 일치시키기 위해 노력해 하나의 전체를 이루도록 하는데 있다. 그것이 우리가 목표에도 도달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질문의 한 가지 측면에서 이루어진 분석의 평가를 이끌어내는데에 한계를 둘 때마다, 그리고 다른 측면과의 통합을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연구 작업을 계속할 필요성을 우리가 잊을 때마다 — 아무리 훌륭하고 정확한 분석 작업이었던 라도 우리는 목표로부터 더 멀어진다. 우리가 끊임 없는 움직임과 변동성의 요인을 고려하기를 잊고, 우리가 찾은 진리의 일부를 안정적이고 확고하며 “경직된” 것으로 간주할 때마다 — 우리는 진리로부터 멀어진다. 참된 방향은 모든 것이 계속적인 움직임에 관여하고 있음을 깨닫는 여러 가지 요인을 항상 설명하고, 이들 요인의 결과 (또한 움직임 자체) 를 찾는 것이다.

#### IV.

만일 우리가 아나키즘과 그 열망을 고려한다면, 우리는 또한 우리가 각 단계에서 똑같은 오류를 발견하고 똑같은 수정 작업을 필요로 한다는 것을,

그리고 그로 인해 우리가 여전히 올바르게 진리를 추구하는 방법들과 매우 멀리 떨어져 있고 결과적으로 올바른 개념으로부터도 멀리 떨어져 있음을 발견하는데에 깊은 유감을 표해야 한다.

여기에도 우리의 습관적인 방법이 그대로 남아 있다. 어떤 진리를 발견해 확립한 뒤 (많은 경우 발견되고 오래 지난 후에도), 우리는 그 안에 혼재된 오류와 결합에 눈을 감기 시작하는데, 우리는 그것들을 이해하고 제거하려 하지 않는다. 그리고 우리는 그 일부를 영속적이며 흔들리지 않는 창조적 왕관이라고 선언하기 시작한다. 우리는 그것을 불변이자 완전한 진리로 간주하기 위해서 두르고, 통합의 작업으로 옮겨 가야 할 필요성을 잊고, 특히 사회적 창조성의 영역에서 중요한 발전의 주요 기능으로서의 그 능력을 설명하는 데 소홀하게 된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습관적으로, 옹졸하고 맹목적인 태도로, 아주 작은 진리 속에서, 심지어 완벽하게 불이 밝혀져 있을 때에도, 그리고 작업 전체를 포용하는 통합을 추구하기 위해 할 일하도록 하는 대신에, 다른 구석으로 들어가고 싶은 욕망으로 인해 맹렬히 자신을 방어하는 이유다.

예를 들어, 나는 막시모프 (Maximoff) 동지 (미국의 러시아어 신문 「골로스트루제니카 Golos Truzhenika」) 에 실린 〈벤치마크 Benchmarks〉 라는 기사를 읽었고, 그가 가장 세심한 방법으로 일반적인 계획뿐 아니라 사회 혁명 과정에서 미래의 사회 구조에 의해 채택될 가장 세밀한 세부 사항까지 수립하는 것에 관심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나는 스스로에게 물었다. “이 모든 것들은 훌륭하고 누누이 이야기 되어 온 것들이다. 하지만 막시모프 동지는 어떻게 종이에 적힌 그의 건조한 계획의 차가운 여백 안에 복잡하고 정신 없는 삶의 양상들, 그 모든 거대하고 활기 넘치는 통합을 유용하게 채워 넣거나 쌓아 올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나는 삶이 이 계획에 자신을 도입시키기를 거부하리라는 것을 알고 있다. 나는 이 계획에는 많은 결점과 공백을 넘어 아주 적은 일부의 진리밖에 포함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 그리고 막시모프 동지가 그의 공식을 세련되고 견고한 것으로만 드는 것들의 미할 정도로까지 완성된 것으로, 이 공식 (또는 그런 위치에 있는 다른 어떤 것과 비슷한 것) 이 유일한 진리를 포함하고 있으며, 그 진리가 아닌 모든 것은 비난받고 비난받아야 한다고 가장하는 한, 나는 그것 (또는 다른 어떤 정확한 도식화) 이 단지 조직의 요소의 중요성을 과장하고, 그 자체로만 정확하고 훌륭한 의미를 가지고 있을 뿐, 유일한 요소와는 거리가 멀고, 그것이 설명하기에 없어서는 안 될 특정한 결합에 물들어 있을 뿐, 그것 없이는 동등한 중요성을 가진 다른 요소들과의 통합과는 별개로 모든 의미를 잃게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아나키즘적 조합주의자 anarcho-syndicalist” 들이 조합주의 (혹은 아나키즘적 조합주의) 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이며, 그들에 의해 확립된